

“올 분양 50만호…역대최고 수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입주물량 46만호
공공재개발·재건축 3차례 29곳서
2.7만호 후보지 선정·후속절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석당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5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 가구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 가구”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계획은 민간·협회를 취합해 36만2000~39만1000가구, 공공 9만2000가구, 사전청약 3000가구 등이다. 다만 민간 차원의 계획이 함께 취합돼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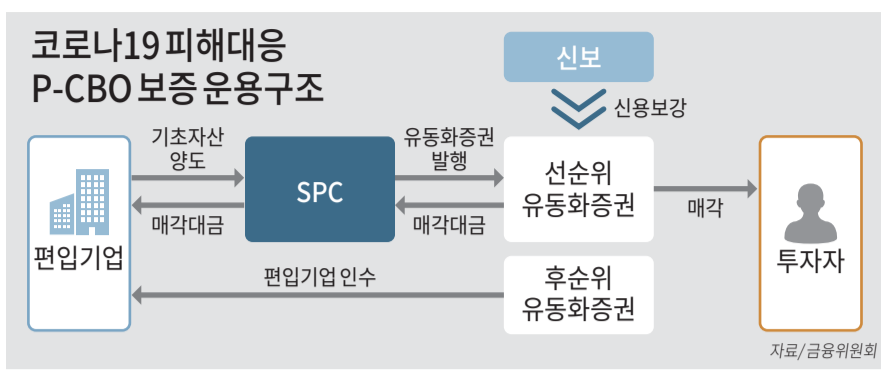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공공 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7000가구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착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4 주택공급대책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세 차례에 걸쳐 5만9000가구 규모를 순차 공개한 바 있으며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택지와 관련해 지난주 2차로 1만8000가구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했다”며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 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계획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oul.co.kr



코로나로 매출감소 中企에 P-CBO한도 확대 자금공급

〈회사채담보부증권〉

금융위, 기존 지원 프로그램 보완 매출액 한도 ‘3년간 산술평균’ 전환

정부가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개편해 매출이 전기 대비 50%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과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확대해 자금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매출액이 과도하게 반영돼 기업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저신용 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P-CBO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개편한다. 매출이 전기 대비 50%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과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매출액 한도를 차기 1년간 추정 매출액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산술평균으로 전환한다. 매출액 기준을 올려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업종 성장성 등을 고려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액 한도도 확대한다.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그 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금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한다.

취약업종 등 계열 한도 소진 기업을 위해 계열별 한도도 확대한다. 대기업은 2500억원에서 4000억원, 중견기업은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후순위채 인수비율도 완화한다. 인수비율 제한을 개별기업 단위에서 유동화 풀(Pool)단위로 전환해 전반적 인수비율을 완화한다. 이 경우 개별 단위 1.5~6.0% 범위내 설정된 인수비율이 유동화 Pool단위 1.5~3.0% 범위 내로 설정된다.

P-CBO가 발행되면 선순위 채권은 신보가 보증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후순위 채권은 신보의 보증없이 회사채 발행기업이 매입한다. 인수비율을 축소해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 발행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편 프로그램과 추진 상황등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SPV 연장여부와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은 영방향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달러 약세… 외환보유 규모 ‘사상 최대치’

한은, 지난달 보유액 4523억 달러
61.8만 달러 늘어… 세계 9위 수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 규모가 달러 약세에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523억1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61억8000만 달러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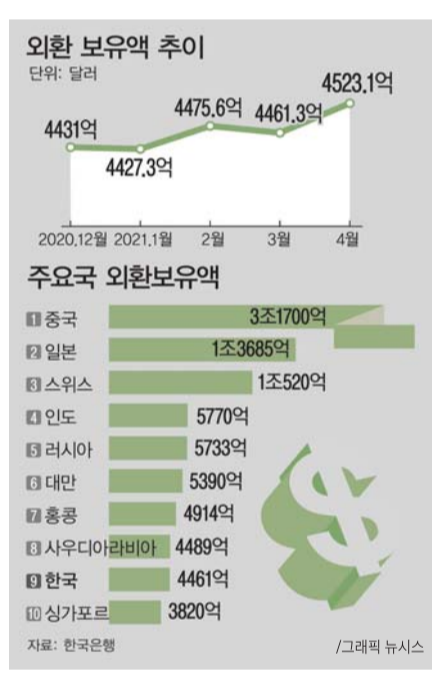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고,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증

가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4120억7000만달러로 91.1%를 차지했고 ▲예치금 272억2000만달러(6.0%) ▲금 47억9000만달러(1.1%) ▲IMF포지션 46억9000만달러(1.0%) ▲SDR 35억3000만달러(0.8%) 등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 3조1700억달러로 가장 많으며 ▲일본 1조3685억달러 ▲스위스 1조520억달러 ▲인도 5770억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韓 기업가정신지수 9위… 6계단 상승

중기부, 제품·시장 역동성은 ‘1위’
종합점수 1위 ‘인니’ 2위 ‘네덜란드’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가 지난해 44개국 가운데 9위로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하며 10위에 들었다. 특히 제품·시장 역동성은 1위, 정부 창업정책 적절성은 5위를 각각 차지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링(GEM)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조사 분야별 지수를 합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5.49점으로 9위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5.13으로 15위였다.

종합점수 1위는 2019년 당시 8위였던 인도네시아(6.39점)가 차지했다. 이외에 네덜란드(6.34점), 대만(6.06점), 인도(6.03점)가 각각 2~4위에 올랐다.

2019년 당시 1위였던 스위스는 지난해 10위로 밀려 한국보다 뒤쳐졌다. 이스라엘, 미국은 11위,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또 제품과 시장의 변화속도를 가능하는 ‘시장의 역동성’이 전체 국가 중 1위(7.9점)를, 정부 창업 지원정책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정부정책의 적절성’은 6.2점으로 전체 국가 중 5위를 각

각 차지했다. 또 지난해 낮게 평가됐던 지표인 ‘대학이상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과 훈련이 적절하고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도 4.6점(2019년 4.19점)으로 전년 대비 19계단 오른 22위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장의 개방성’은 13계단 상승했고, ‘기술이전 지원’과 ‘정부 규제 정책의 적절성’은 6계단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2019년에 이어 전체국가 중 가장 낮은 43위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44개 국가가 참여한 ‘국가 전문가 조사’와 달리 ‘일반성인 조사’로 43개 국가가 참여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창업·벤처기업의 도전 정신과 최근 우리 창업 생태계에 도래한 제2벤처붐을 국제적인 연구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면서 “중기부는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뿐만 아니라 비대면 분야 등 신산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벤처를 집중 지원하고 벤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제2벤처붐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창업·벤처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